



(주)이오시스템

‘UV-C 대역 검출을 위한 필터용 필름 제조기술’로 신기술인증(NET) 획득

(주)이오시스템이 지난 8월 23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2회 신기술인증서 수여식'에서 'UV-C 대역 검출을 위한 필터용 필름 제조기술'로 신기술인증(NET)을 획득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신기술인증은 국내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고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오시스템이 신기술인증을 획득한 'UV-C 대역 검출을 위한 필터용 필름 제조기술'은 UV-C 파장대역을 제외한 다른 파장대역을 완전하게 차단하는 필터를 제작하는 원천기술이다. 필터를 통과한 UV-C 파장 대역을 눈에 보이도록 변형시켜 자외선 발생 부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로 방산 및 민간 분야에서 모두 활용 가능하다.

미사일 발사 탐지 및 경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첨단부품 등 국방 분야에 주로 쓰이며, 낡거나 훼손된 고전압 송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방전을 탐지하는 등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특히 국내 고전압 설비의 대다수가 노후화돼 있다. 이에 고전압 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기 위해 해외에서 자외선 카메라를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매우 고가품인 탓에 일부 대기업과 전기관련 업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국산화를 통해 적정 가격에 유통이 가능해지면 수입품 대체 효과 뿐만 아니라 핵심 수출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외선을 이용한 피부질환 진단, 자외선 측정을 통한 환경 변화 측정 등 미개척 분야에서 자외선에 대한 새로운

용도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이오시스템은 국내 최대의 광학 관련 방산 업체로 야시 장비를 비롯해 다양한 하이테크 장비를 군에 납품하고 있다. 군용 기술을 민간에서 활용하기 위한 'Spin-Off' 전략을 꾸준히 추구해왔으며 군용 자외선 탐지장비를 개발한 경험을 토대로 'UV-C 대역 검출을 위한 필터용 필름 제조기술'을 개발했다. 또한 이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카메라 개발과 광전자 분야의 민수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8월 23일 역삼동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2012년 제2회 신기술 인증서 수여식'에서 이오시스템 이원승 회장이 신기술 인증서를 받았다.